

Baewha Worship

2016.03.20

Lent

사순절 제5주



To. Baewha Church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처음이야기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좀 더 머무르면 안되겠냐고 말할 정도였다. 바울은 간신히 뿌리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다시 오겠다” 하였고 약속대로 다시 오게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세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말씀을 기뻐하며 들었다. 바울은 두란노서원에서 제자들과 약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컸는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로부터 30년 뒤 요한계시록은 에베소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한다. 천사가 와서 가장 먼저 이름을 거론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교회였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기가막힌 칭찬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엇이 문제였을까? 늘 바울의 기쁨이었고 칭찬받던 1세대가 가고, 그 자녀들에게 이어진 2세대에게 어떤 변화가 있던 것일까? 여전히 수고하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봉사하지만 깊은 헌신, 처음 마음을 잃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1세대인가? 2세대인가? 배화교회의 1세대이면서, 동시에 한국교회의 2세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배화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준이 되길 바라고, 동시에 한국교회의 오늘을 돌아보는 기회되기를 바란다. 배화교회의 1세대로서 에베소교회의 처음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뤄지고 지켜지기를 바란다. 내 삶의 처음에 있던 순수함, 내 신앙살이의 처음에 있던 열정, 내 믿음의 처음에 있던 간절함, 내 사역의 처음에 있던 떨림이 우리 배화교회에 모여 더욱 깊어 지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심어놓으신 아름다운 전통과 마음을 지키고 이야기를 원한다.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에베소교회는 한 번에 무너지거나, 한 번에 멀어진 것이 아니다. 교회도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지 않는다. 나무가 갑자기 썩어서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서서히 썩어가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다. 그저 익숙한 성도가 되면 안된다. 예배가 익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익숙하기만 하면 행위만 남고 마음이 사라지는 법이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떠나며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 “순진하게 속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는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르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닦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 계 이상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1.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 그가 오신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3.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커가는 작은 교회

배화교회

Baewha Community Church

예배의 부름 *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송영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 (2) 한 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쁘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 (3) 온 천지 창조 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 (4) 그 운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예배합니다

그가 오신이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회중기도 김창현 간사

기도송 우리의 기도를 통해

C F/G G/C C F/G G C F/G C C7 F C/E

우리의 기도를 통해 - 오주여 일하소서 - 주의 뜻이루소서

6 F C2/E F G C Gm C7 Dm7 C/E Dm7/F F/G G C F/C C

서 - 아 - 멘 - 아 - - - 멘 -

교회를 위한 기도 다함께

- (1) 배화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깨닫는 교회되게 하소서.
- (2) 40일 아침기도회와 토요기도회모임을 통해 설립예배와, 이를 준비하는 몸 된 교회가 날로 강건하게 준비되게 하소서.
- (3) 다음주 예정된 정례회의를 통해 필요한 부서들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책임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기도송 우리 교회의 기도

C C/E F C/E Am Dm D/F# G

하나님을 사랑 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부드럽게 항상 감사 하고 남 편을 존경 아 내를 사랑
진심으로 서로 위로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5 C C/E F C/E F C/E G C

우리 땅에 이룸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 주님의 가정으로 삼
주님 뜻이 이루어 지는 교회 하나 나라 임 하소서

교회소식 김영석 목사

- (1) 추가 보수공사가 예정되어 다음주 예배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2) 다음 주일에는 점심식사 후,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배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일곱번의 기도모임: 2월27일-4월9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5시
- (4) 이번 주일은 이동근 이은미 성도님 가정 심방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승민혜전도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봉독 다함께 *일어서서

<요한복음 12:12-19>

12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 이는 기록된 바 기이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17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3)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불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느도다 하니라

말씀선포 김영석 목사

"처음 행위를 가자라"

봉헌찬양 부흥

*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축도 김영석 목사